

조선대병원 '찾아가는 음악회'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사진)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SBS오케스트라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SBS오케스트라와 뉴 클래식 성악 앙상블인 비바보체, 가수 현숙 등이 출연한다. /채희종기자 chae@

권정달 안동권씨대중원 총재 선출

권정달 전 국회의원이 7일 서울 국방회관에서 열린 안동권씨 전국 총회에서 안동권씨 대총회와 중앙총회가 통합돼 문중 대표기구로 새로 출범한 안동권씨대중원의 총재에 선출됐다.

KT 이석재 회장 IEEE 산업리더상

KT 이석재 회장이 7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2011 국제통신학회(ICC)'에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산업리더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이상은 그동안 NTT도코모 게이치 다치카와 사장, 노키아 요르마 울릴라 회장 등(수상 당시 직책) 세계 최고의 명사들이 받았다. /김경인기자 kki@

사토요지 원아시아 재단 이사장 특강

사토요지(65) 원아시아(OAC) 재단 이사장이 8일 오후 4시 호남대(총장 서강석) 관공관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특강에 나선다. 이날 강연에서 사토요지 이사장은 "머지않아 세계는 하나로 된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장흥 전통가무약제전 흥진경씨 대상

지난 4~5일 열린 '제13회 장흥 전통가무약제전'에서 기악부문 흥진경(31·충남 계룡사·사진)씨가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에는 무용부문 최지선(38·광주)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관소리부문 김소라(40·경기도 용인)씨와 고법부문 권은경(31·대전)씨가 차지했다. /충무취재본부=김용기기자

“세계가 당신을 기다린다, 가능성은 무궁무진”

‘1조 韓商’ 박종범씨 30년만에 모교 조선대 방문

“세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15개국에 23개 사업장을 운영중인 ‘글로벌 한상(韓商)’ 박종범(주)영산글로벌 대표이사가 30년 만에 모교인 조선대를 찾았다. 박 대표이사는 7일 후배들에게 ‘사례분석을 통한 유럽시장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에 앞서 만난 박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시대에 후배들이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교를 찾게 됐다”며 “영산 그룹에서 후배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꿈이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연매출 1조 원대의 대기업을 경영하는 재외동포 기업인이다. 그는 1981년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후 대성 그룹의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이후 1996년부터 이어가자자동차 오스트리아 법인장으로 비엔나에 주재하면서 IMF때 본사 부

도라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1999년 비엔나에서 직원 1명으로 무역을 시작하며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이후 한국의 사탕 포장지를 시작으로 유럽에 자동차 부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성장했다. 현재는 물류, 유통, 제조, 판매를 아우르며 전세계 600여명의 직원들이 그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직원 규모를 1000여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산 그룹의 ‘영산’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영산(靈山)을 의미하는 그의 세례명 카르멜로와 그의 고향 대촌면 구소리 옆을 흐르는 영산강에서 따왔다. “젊은 인재들이 시각을 넓게 갖고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주인공이 후배들이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사십시오.” 박 대표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열정과 신념을 갖고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일어를 쓰는 오스트리아에서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신뢰가 밑받침됐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후배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사업을 펼쳐 우수 인재는 영산 그룹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고향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여수와 전주에 공장을 설립중이다. 최종적으로는 고향에 병원, 요양원, 노인대학을 갖춘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그는 현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회장으로 교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 영주권을 가진 두 아들 건영·건호씨 모두 한국에서 군복무 중이며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 /사진=나명주기자 mjna@



김준엽 前고려대 총장 별세

일제 강점기 광복군에 참가했던 중국 전문가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사회과학원 이사장)이 7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20년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난 김 전 총장은 1940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하던 중 학병으로 징집됐다 탈출해 광복군에 참가했다. 해방 후 중국과 대만에서 중국사를 연구한 그는 1958~1982년 고려대 문과대 교수로 중국 근대사를 가르쳤으며 미국 하버드대(1958)에 이어 프린스턴대(1968)의 교환교수를 지냈다.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베이징대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산둥, 난징, 옌변대 등 중국 내 9개 대학의 객원교수를 맡았고, 1960~70년대에는 3차례 한국대표로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한국공산권연구협회회장과 중국학회장 등을 지낸 그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 독립운동유공표창, 건국포장, 건국훈장 등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중국 주요 대학에 한국학연구소를 세우는 등 한중학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국제교류재단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임영주씨와 아들 홍규씨가 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연합뉴스

“기상업무 최전선 호남서 정확한 날씨예보”

국내 첫 여성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 김명수 씨

“기상 업무의 ‘최전방’인 호남 지역에서 최상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일 취임한 전국 최초 여성지방기상청장인 김명수(56) 광주지방기상청장은 “태풍이나 황사가 항상 호남 지역부터 접하기 때문에 기상업무의 최전선”이라며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상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여수 해양 엑스포, 영

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광주·전남의 기상서비스는 국격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국내 첫 여성 기상예보관”이다. 지난 1988년 기상직 5급에 특채돼 전주기상대장, 기후변화감시센터장, 창원기상대장 등을 지냈다. 예보관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는 김 청장은 최근 기상이번이 빈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지성 집중호우나 예기치 않은 폭설 등을 예로 들며 한반도 기록된 적 없는 특이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

만, 지난해 93%를 기록하는 등 예보 정확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전주기상대장으로 근무했던 김 청장은 “호남지역이 친근하다”며 “지역민들의 날씨예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부산 윤태근씨 20개월간 5만7400km 항해

요트 타고 세계일주 바다사나이의 귀환

부산의 한 40대 요트인이 20개월간의 세계일주 항해를 마치고 7일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다. 윤태근(49)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길이 11.3m 크기의 요트 ‘인트레피드’를 타고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입항해 기다리고 있던 요트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윤씨의 항해는 한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최초의 단독 세계일주다. 항해거리는 무려 5만7400km, 항해기간도 20개월이나 됐다. 2009년 10월 11일 인트레피드를 타고 부산을 출발한 윤씨는 일본, 대만, 홍콩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지나 인도양을 건너고 소말리아 해협과 홍해, 수에즈운하, 지중해, 지브롤터해



협, 대서양,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돌아 태평양을 건너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세계일주 항해를 하면서 28개국에 있는 여러 항구를 방문했다. 요트 운송대행업을 해온 윤씨는 세계일주를 위해 7년간 준비를 해왔고 주변 요트인들의 도움을 받아 2억여원의 경비를 마련했지만 예상보다 항해거리와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윤씨는 “월월단신으로 세계를 한바퀴 돈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용기를 준 가족들과 도움을 준 주위분들을 생각하면서 외로움과 거친 바다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혁중 광주대 총장 등교길 학생들 격려



김혁중(왼쪽에서 두번째) 광주대 총장은 7일 오전 대학 호스핀 4층에서 학생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등교한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며 격려했다. <광주대 제공>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중학생 체험학습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원장 이정식)는 최근 서석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전남대병원 직원 한마음 등반대회



전남대병원 송은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내과·간호부·총무과 등 120여명은 최근 만년산 정상에 오르는 직원 한마음 등반대회를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전남대병원 제공>

광주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발대



광주 북구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송광문 청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와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임영호·김명자씨 장남 응재(광주 도시철도공사)군 백상중·정영화씨 장녀 선향(영주초등학교 교사)양=11일(토) 오전 11시 30분 문흥동 성당(문흥교가길) ▲신홍수(영동주유소 대표)·서덕례씨 막내 희성군 김영수·오점례씨 장녀 순옥양=12일(일) 낮 12시 콜롬버스웨딩홀 2층 아도니스홀

중친회

▲한국 법치씨 대중연합회(회장 최남웅) 2011년도 정기총회=11일(토) 오후 6시 30분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062-236-322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갑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운암골 축구회 회원=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 전일찬.

모집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홀패션, 리빙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010-9940-1769. ▲축령산 지킴이 회원=장성 축령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실 40~50대 회원 011-646-357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종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수창초교 야구부 2·3·4학년=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무료사진스토리텔링교실=20일~7월20일(수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 주회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 이야기통통 062-381-5252. ▲힐링 타이로마 회원=친구·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상무지구 종은빌딩 4층 062-372-

2023. ▲오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 가장이신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오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소식지 '학은골' 편집위원 및 원고=편집위원 0명 모집, 소공동체·신심단체 소개(200자 원고지 5매, 단체사진), 목상·일기·교육소감 등 신앙 에세이(5매, 필자 사진), 기타 일하고 싶은 마당 및 공동체소식. 학은골 편집위원회 010-2734-5735 (jjnews@naver.com). ▲재광 순창 향우회 회원=40~55세 참신하고 훌륭한 젊은 회원. 019-603-9515(김진곤), 010-6610-5417(김수열). ▲이화순유치원=친환경교과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제 3차 아파트 옆 062-367-0851~3. ▲심청제가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

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가능. 062-264-7748, 018-690-5356. 부음 ▲이석연(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광학(영국 웨일즈 대학 교수)·경희씨 부친상=발인 9일(목) 철단 보훈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973-9164. ▲한디주씨 별세 신덕진·창진·덕남·덕례씨 모친상=발인 9일(목) 송정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2. ▲문재관씨 별세 경식·성인·경희·수경씨 부친상=발인 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규순씨 별세 윤흥균(목사)·덕균(자영업)·영균(광주시청 도로계획담당)·용수(IQ 파워아시아 전무)씨 모친상=발인 8일(수) 삼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380-3444. ▲서정철씨 별세 부현·명현·을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황 의 준 남(남/61세) 未亡人: 광명자 子: 황호연 女/婿: 황혜정 故 한시호 남(남/78세) 子/子婦: 황경순 / 정경희, 용택 / 이임운 女/婿: 한경자 / 최방은 故 송정욱 남(남/74세) 未亡人: 윤은정 子/子婦: 송정재/이경희, 현승/조희진, 준범/김현정 女/婿: 송지연/박현권, 회경/이경선 故 오향례 남(여/87세) 子/子婦: 김충환 / 고현숙, 충준/이문애, 중현/조귀태, 준복/황은영 女/婿: 김복순/신경림 故 박문배 남(남/77세) 未亡人: 김매애 子/子婦: 박진재, 경수/임은정, 문화/조미경, 충영/유미, 민경/황미영 女/婿: 박현숙/김명수 謹 孝 金 浩 宗 喪 禮 式 場 24시간대기 (062)250-4455